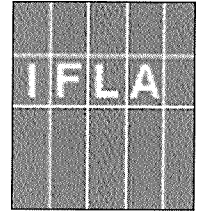


“

- 1. Government Libraries (정부도서관분과)
- 2. Social Science Libraries (사회과학도서관분과)
- 3. Geography and Map Libraries (지리·지도도서관분과)



”

지난 호에서는 IFLA 분과회 중 3개 분과(국가도서관, 대학·연구도서관, 의회도서관)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도서관(Government Libraries) 분과, 사회과학도서관(Social Science Libraries) 분과, 지리·지도도서관(Geography and Map Libraries) 분과에 대한 개괄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1. 정부도서관 분과(Government Libraries Section)

정부도서관 분과는 IFLA 부회 중 특수도서관 부회(Division II)에 속한 분과로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업무 및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정부도서관 및 정부 정보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 각 정부도서관 간 상호 협력 지원
- 정부도서관이 단순히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케 할 수 있도록 조언 제공
- 각 정부도서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 간에 축적된 정보 교환은 물론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각종 방안 제시

정부도서관 분과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해당기관의 정부도서관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디렉토리 및 정부도서관 종사자 사이에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토론목록에 관한 리스트서브*를 개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및 정부도서관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타 IFLA 분과와 공동 협력하여 공개회의나 워크숍 등을 개

* 리스트서브 : 특정 그룹전원에게 메시지를 이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부도서관'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정부도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각 정부 기관이나 정부출자단체에 소속된 '정보센터'나 '자료실' 등 전문/특수도서관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각국의 정부도서관에 대한 연구서를 살펴보면 그 숫자도 많고, 비슷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공개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부족과 추가적인 정보의 가공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력 및 시간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보의 수동성과 한시성 및 '모호함' 때문에 그 정체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IFLA Government Libraries Section: <http://ifla.org/VII/s4/index.htm>
- Newsletters : <http://ifla.org/VII/s4/index.htm#Newsletter>
- The Use of Internet in Government Libraries :
www.fh-potsdam.de/~IFLA/INSPEL/96-1denh.pdf
- Digital Libraries Supporting Digital Government :
http://portal.acm.org/ft_gateway.cfm?id=379733&type=pdf
- Library Spot : <http://www.libraryspot.com/libraries/governmentlibraries.htm>

2. 사회과학도서관 분과(Social Science Libraries Section)

문화인류학, 범죄학, 인구학, 경제학, 교육학, 미래학, 지리학, 역사학, 노동학, 법학, 문헌정보학, 언어학, 경영학, 철학, 정치학, 종교학, 기호학, 심리학...

이상에 무질서하게 나열된 모든 학문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이들 모두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UNESCO에서는 이들을 사회과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한데 묶어놓고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광범위하게 걸친 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 지원하는 전문도서관을 일컬어 사회과학도서관이라 한다.

사회과학도서관 분과는 대기업의 도서관에서부터 위에 언급된 언어학이나 문화인류학 등을 다루는 소규모의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회과학 관련 기관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과학도서관 분과에서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기관들이 정보와 사상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이를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과학도서관 분과가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사회과학 및 여러 분야에 관련된 전 세계의 전문도서관과 정보센터 간의 경험 공유 및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환경 구축
- 학계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 촉진

- 사회과학과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한 각종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적 자질 배양
- 도서관과 정보에 대한 전문적 기준 수립 및 범세계적 가치 확립
- 사회과학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정보활동의 질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과학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요소 충족 및 안정된 정보환경 배양

참고자료

- Social Science Libraries Section : <http://ifla.org/VII/s5/index.htm>
- Annual Reports : http://ifla.org/VII/s5/annual/s5_annual_report04.pdf
- Medium-Term Programme : <http://ifla.org/VII/s5/annual/med2001.htm>

3. 지리·지도도서관분과(Geography and Map Libraries Section)

도서관에 가면 지도나 지리에 관한 자료를 모은 서가가 몇 개나 될까. 이에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면 굳이 도서관에서 지리·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지리·지도도서관은 우리에게 생소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부 대학에 지리 및 지도에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따로 지리·지도도서관이 운영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정보원과 같은 정부 부속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 국토지리원 / 중국 - 국가측회국 (SBSM: State Bureau of Surveying and Mapping) / 대만 - 토지측량원 등) 반면에 미국,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는 국립지리원의 성격을 띤 정부기관 외에도 각 대학의 도서관에 지리·지도도서관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리·지도도서관 분과는 지리학과 지도제작에 관한 정보를 축적,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학 및 지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 외에도 기존에 발간된 각종 기술연구서, 비정기 논문, 기준안, 매뉴얼, 서지, 소식지 등의 연구·조사 및 관련단체의 창설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리·지도도서관 분과는 지리·지도도서관 종사자가 단순한 지도자료 관리자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도학 관련 정보를 다양하고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단체들과 협력하여 지도자료 관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전문적 능력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Geography and Map Libraries Section : <http://www.ifla.org/VII/s6/>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http://www.ngi.go.kr/index.jsp>
- 국제지도학협회 : <http://www.icaci.org/>
- IUB Geography and Map Library(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도서관 부속) : <http://www.libraries.iub.edu/index.php?pageid=81>
- John R. Borchert Map Library(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도서관 부속) :

http://www-map.lib.umn.edu/map_libraries.phtml

- Western Association of Map Libraries' Map Librarian's Toolbox :

<http://www.waml.org/maptools.html>

- 중국 국가측회국(SBSM: State Bureau of Surveying and Mapping) :

<http://www.sbsm.gov.cn>

- 대만 토지측량원(LSB: Land Survey Bureau) :

<http://www.lsb.gov.tw/en/index.htm>

4. 마치며

지금까지 6개의 분과를 다루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약방의 감초와 같은 말이 있다. '정보의 공유'가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남은 분과를 다루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사회 발전을 불러온 정보혁명시대를 넘어, 사회가 더욱 첨단화 될수록 정보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정보가 가지는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정보관리자로서 우리는 정보의 신속한 교환이나 축적, 보존이 무척이나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에만 급급해서 정보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교육의 역할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정보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 자체보다 정보를 이용하는 이들이 이를 선별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도서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글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3월호 소개 분과〉

- 과학 · 기술도서관 분과(Science and Technology Libraies)
- 보건 · 생물도서관 분과(Health and Biosciences Libraries)
- 예술도서관 분과(Art Libraries)